

## 2020년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사목국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평신도 그리스도인」, 36항) 본당 공동체가 됩시다.

1. 우리 모두가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선교사’이며, 각자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임을 되새기며 살아갑시다.
2. ‘말씀, 기도, 교회의 가르침, 미사, 사랑 실천’의 신앙의 다섯 가지 기초를 지속적으로 다져 ‘복음화 되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3. 본당과 그 지역을 ‘복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4. ‘새로운 선교 열정을 위한 기도’를 바칩시다.
5. 복자 주문모, 최인길, 강완숙이 이룬 하나 된 공동체의 삶을 본당의 평신도-수도자-성직자가 이루도록 노력합시다.
6. ‘특별 전교의 달’의 지향에 따른 「생활 실천표」를 지속적으로 실천합시다.
7. 교황 프란치스코의 복음화 권고 문헌을 공부합시다.
  - (1) 현대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 (2) 현대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 <행정지원팀>

“단체들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완수에 봉사하여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19항)

따라서 평신도 (사립)단체들과 구성원들은,

1. 각각의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라는 보편적 사명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복음 선포의 소명을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해 단체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깊게 하는 피정과 교육을 통한 영적인 성장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해에는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에 중심을 두었다면 올해에는 친교의 공동체인 본당과 함께 성장하고 본당 안에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 인준받은 단체들은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 가입하여 서로 유대하고 협력하며, 사목국 행정지원팀에 협조하여 인준 단체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지원팀>

세상 안에서 ‘성사적인 존재’로서 복음선포와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본당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1.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

본당은 가정 공동체의 성화를 바탕으로 신자들이 충실한 성사생활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사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성사생활의 은총으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고, 전례 안에서 참된 친교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신자들이 본당 사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역반 모임 활성화를 통해 참된 친교의 공동체가 되고, 예비신자, 새신자, 냉담신자를 적극적으로 돌봄으로써 활기 넘치는 본당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시다.

### 2. 본당 공동체의 봉사자 양성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내적 복음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는 이들이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어 본당 공동체 활성화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격려해야 합니다.

양성은 사목적 관심과 함께 교육을 통하여 이루지는 것입니다. 본당 내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교구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봉사자들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기꺼이 응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3.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로서의 본당 공동체

내적 복음화를 통한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는 선교의 열정을 낳게 합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와 구역반 공동체는 삶 안에서 선교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입니다. 또한 본당의 단체들은 각자의 소명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서 교회의 복음화 사명이 적극적으로 수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사목적 배려를 함으로써,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 · 일반

1. 본당 공동체의 사목에 협력하고 봉사하는 이들의 양성 교육에 대한 본당과 교구 차원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목위원(사목위원 양성연수, 신임사목위원 연수, 분과별 사목위원 교육 등)과 구역반장(구역반장학교, 구역반장 월례·저녁연수, 공동체되기 특강, 피정 등)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본당 봉사자 양성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나, 상황이 어려워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목국 교육지원팀과 협의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당과 교구 간 소통과 연대를 위하여 회의와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지역·지구 교육 담당사제, 총구역장 지구대표, 교육 봉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요.
3. 본당 수도자들과 협력하여 본당 공동체가 참된 친교와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들을 위한 교구의 양성 프로그램(수도자 연수-3회)과 지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요.

## · 선교전례

1. 각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본당 중심의 구체적인 체계적인 선교운동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신자 교육과 교리 봉사자 양성을 위해 교구에서 실시 중인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양성 교육과 ‘가톨릭 교리학교’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후 새신자들이 신앙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도록 후속 교리 프로그램 등 견진성사까지 체계적인 입문성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회의 선교사명을 재인식하고 선교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목활동에 애써주시요. 선교 사명 인식 및 선교 훈련 교육 프로그램인 교구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특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전례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신자들을 이끌어 주시요. 본당 전례 봉사자들을 위한 교구의 ‘전례학교’, ‘성주간 전례 교육’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정

1. 생명과 신앙의 기초인 가정 공동체의 복음화를 통해 본당 공동체의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요.
2.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예비부부들이 혼인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교회 안에서 혼인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혼인교리’를 강조해주시요. 더욱 깊은 나눔을 통해 부부의 사랑과 일치를 준비하는 ‘약혼자주말’과, 젊은 부부들의 소통과 관계 성장을

을 위한 ‘코이노니아주말’ 참여를 독려해주시옵시오.

3. 교구 봉사자를 본당에 파견하여 가정 공동체의 성화를 돕는 ‘아버지여정’, ‘부부여정’, ‘말씀 안에 성가정’ 프로그램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웃 본당과 함께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낙태로 상처받은 가정이 하느님과 낙태된 아이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도록 돕는 ‘희망으로 가는 길’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주시옵시오.
5. 가정 안에서의 소통과 나눔을 위해 ‘스마트폰 휴식시간’을 적극 권장합니다. 절제의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옵시오.
6. ‘고맙습니다’ 운동을 실천합니다. 가정과 본당에서 맺어진 관계들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과 축복의 관계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노인사목팀>

“하느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이도 쓸모없고 무의미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열매이기에 모두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19년 전교주일 담화’ 중에서)

1. 노인 신자들이 “본당 안에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한 다양한 신앙 강좌와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 신자들은 본당 공동체의 모든 세대에게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노인 신자들이 모든 세대를 위한 영적 동반자로서 기도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노인 신자들의 신앙·영성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 「주님과 함께」를 개발 보급하고, 다양한 내용의 교육·강의 프로그램을 본당에 제공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들을 위해 <교사 양성교육 초급·중급과정> 및 <월례교육>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 본당 노인 신자와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들의 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진이 등록되어 있는 <강사뱅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적극 신청 바랍니다.
6. 영 시니어(55~67세)를 대상으로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2년제 과정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7. 건강상 이유로 예비신자 교리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본당신청을 받아 방문교리 교사를 파견하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8. 글을 모르는 노인 신자들을 위해 문해(文解)교육을 실시하는 「시메온 학교」를 설립하여

본당·지구 단위로 확산,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해교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  
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직장사목팀>

직장 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깨닫고 더욱  
굳게 다져진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실천 사항을 권고하고 노력합니다.

1.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의 생활이 교회의 가르침과 분리되지 않고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더욱 잘 알고 가까이하기 위해서 공동  
체 모임과 교육 행사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도가 필요한 교우를 위해서 직장교우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3. 직장을 다니는 교우들이 미사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사 참석과 미사에  
관한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4. 교우회 미사 때 각 교우들로 하여금 고해성사 및 미사 준비를 성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5. 교우회 모임 시 성경읽기와 나눔 및 ‘가톨릭 직장인’ 월보를 통한 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직장인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연 2회 진행되는 피정과 성지순례 및 신앙대회와 같은 직장사목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직장생활의 의미 있는 쉼터를 찾고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7. 격년으로 진행되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에 많은 예비신자들과 교우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서못자리>

1.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근간(根幹)이 되는 ‘성경’을  
본당 공동체의 교우들이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구 공인 성서사도직 프로그램인 ‘성서못자리’를 비롯한 ‘가톨릭청년성서모임’, ‘가톨릭성서  
모임’, ‘성서백주간’, ‘여정성서모임’, ‘베네딕도성서학교’, ‘바오로성서모임’, ‘시청각통신성서  
교육원’ 등을 교우들에게 소개하여, 유사종교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  
참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당 내에 성서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이 단순히 지식 추구에 머물  
지 않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야고 1,22)”으로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청년성서모임>

1. 우리가 속해 있는 본당, 대학, 직장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선교사’임을 되새기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성서 묵상과 나눔, 기도 중심의 그룹공부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그룹봉사자와 그룹원 모두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 본당이나 대학에서 모임 시작 전에 주일 독서, 복음 묵상나눔과 기도로 시작하고 SNS를 통해 평일 독서, 복음 묵상나눔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소그룹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부서모임, 대학 개강미사&기도모임, 본당 지구미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함께 모임 젊은이들의 교회를 이루는  
가톨릭청년성서모임”은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합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젊은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본당, 대학, 직장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합니다.

## 청소년국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2019년 전교주일 담화문에서 ‘저는 언제나 선교사이고, 여러분도 언제나 선교사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가 선교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중략) 본당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중략) 본당 신자들뿐 아니라 구역 안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 관공서 등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요.”  
(2020년 사목교서 중에서)

이러한 사목교서의 방향에 따라 본당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바로 증거와 모범으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반하는 것이 올해 청소년 사목의 목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운다는 말처럼 대상이 될 때보다 주체가 될 때 성령의 불길이 더 크게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체험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각 청소년국의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많은 의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 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도 본당의 관심과 배려, 참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 본당 선교의 장은 더욱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1. **(유아부)** 영유아 역시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영유아들은 부모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배려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아방은 그들을 격리시키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제대가 보이지도 않고 하느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전례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영유아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초등부)** 본당 공동체는 교리교육의 첫째가는 주동자이며 탁월한 장소입니다(「현대의 교리교육」, 67항 참조). 사목교서의 내용에서처럼 본당 공동체에서 어린이들이 복음의 기쁨을 믿고 체험하며 보존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일학교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대부분의 본당이 교리교사를 통해 교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교리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교리교사 양성에 힘써주십시오. 이에 따라 청소년국 초등부에서 진행하는 교리교사 연수와 교육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십시오. 또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마르 10,16 참조) 본당 공동체의 신부님들이 어린이들과 만나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회가 행사 위주의 과업에 지치지 않게 하느님의 말씀을 맛들이며,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신앙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한 교사 생활을 통해 교회의 참 봉사의 의미, 곧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체험하여 신앙적 및 전인격적인 성장과 함께 가르치면서 배우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연수를 통해 양성된 각 본당 및 지구 청소년 대표자들이 주체적으로 미사와 전례,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더욱 신앙심을 키워 또래 사도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각 본당 청소년 담당 사제는 본당 안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외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자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스스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 할 수 있도록 미사와 행사 등에 가족을 초대하여 선교 공동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 **(청년부)** 하느님의 ‘지금’인 청년들이 성경을 통해 하느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며, 그 신비를 교회 공동체에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양성해 주십시오.

청년 사도로서 ‘복음의 기쁨’을 성사 생활과 생태적 삶을 통해 구현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선교의 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5. **(중고등학교사목부)** 본당 구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도 사목적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중고등학교사목부는 본당 사목자들이 학교에 ‘찾아가는 사목’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본당과 연계하는 학교 복음화 활동에 협조해주십시오.
6. **(대학교사목부)** 본당 관할 내 대학교는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좋은 선교의 장소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2019년 전교주일 담화문에서 “저는 언제나 선교사이고, 여러분도 언제나 선교사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가 선교사입니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처럼 본당 관할 내 대학의 가톨릭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고 캠퍼스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주역이 되도록 함께 동반하며 이끌어주십시오.
7. **(가톨릭스카우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활동함으로써 가정의 성화되고, 이를 통해 본당 공동체가 활동적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본당 내 활동프로그램인 가톨릭스카우트를 지지해 주십시오.
8. **(장애인신앙교육부)** 각 본당의 장애인 가정들을 찾아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사하는 기쁨의 교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또한 본당 선교의 주체자로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장애인들이 하느님 은총의 성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본당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봉사하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 문화홍보국

### <주보편집팀>

1. 전례자료, 복음 묵상과 신앙 나눔, 교구의 여러 소식 등이 담겨있는 서울주보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며 신자들의 신앙생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신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선교와 복음 선포를 위해 앞장서는 본당 공동체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에 서울주보는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라는 주제에 따라 신자 참여형 코너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각 본



당 신자들의 신앙체험을 서울주보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본당 공동체와 소통하고 복음의 기쁨과 신앙을 전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내외 가톨릭 단체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 <사랑의 손길>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팀>

3.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생활과 기쁘게 사는 삶의 증거로 이웃에게 복음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 강좌와 인문학 강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와 방법들을 활용하여 신앙성장과 자아성장을 위한 교육과 체험, 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성탄의 의미를 알리고 기쁨을 나누고자 기획하는 성탄 축제 ‘명동, 겨울을 밝히다’ 행사에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가톨릭교회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나누며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또 하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5.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문화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언론인들의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며, 영적 성장을 위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 <굿뉴스팀>

6.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에서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휴대전화로 얻을 수 있는 신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 생활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라는 말씀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님 말씀을 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영성심리상담교육원>

7. 영성심리상담교육원은 서울가톨릭상담심리학회를 통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적인 상담봉사자와 상담심리전문가를 양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응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은 수강생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상담가로서의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가톨릭 관련 영역 및 상담심리 관련 영역의 강의를 개설하고, 상담수련을 통해 현장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해외선교봉사국

### 1. 해외선교봉사국의 목적(존재 이유)

해외선교봉사국은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해외선교봉사국을 설치하여 나눔이 필요한 교회에 사제들을 파견하고(Fidei Donum) 신앙을 나눔으로써 보편교회의 선교사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대륙)는 사제의 부족으로 심지어 한 신부님이 공소 50개를 담당하는 지역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세계라고 칭할 수 있는 유럽, 북미주, 호주, 일본 등의 대륙도 사제가 부족하여 본당이 공소화되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지역교회에서 한국교회에 사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대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이 모범적으로 살아 성소가 끊이지 않고 사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교지역에서 사제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사제가 부족한 곳에서 사제의 존재 자체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됨을 경험합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은 가능한 많은 사제들이 선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온 세상 곳곳에 가서 다양한 교회와 문화를 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보다 선명하게 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현존은 너무나 강렬하여 하느님 사랑에 온전히 승복하게 합니다. 이는 커다란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교경험을 통해 서울대교구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사제와 신자들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 2. 해외선교는 사제들의 몫만은 아닙니다.

평신도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선교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해외선교봉사국은 가능한 한 빨리 평신도들이 해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 서울대교구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중심이며 물질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외방선교에 도움을 주고자 물질적인 지원도 아낌이 없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백성을 측은히 여기시어 빵의 기적을 이루어 장정만도 오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외방선교를 통해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봉사할 나눔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4. 특별히 사목교서에 따라 2020년에는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의 의미에 맞춰 보고자 합니다. 즉, 해외 각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신부님들의 개별 공동체들이 더 큰

기쁨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교 사제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선교사제에게 알리고 그를 통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곳뿐만 아니라 각지의 선교 본당에서도 기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 5. 현재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선교 중인 지역과 명단 (2019년 10월 기준)

번호	파견국가	지 역	파견사제
1	과테말라	산티아고	김현진
2		산티아고	유동철
3	대만	타이중	신요섭
4		타이중	임창재
5		신주	김재원
6	멕시코	몬테레이	이승민
7		후아레즈	최우주
8	미국(알래스카)	주노	민경일
9	스페인	마드리드	고가람
10	일본	도쿄	이종안
11		요코하마	김윤복
12		후쿠오카	신광수
13		후쿠오카	김성천
14	칠레	산티아고	정성훈
15		이키케	이현규
16	콜롬비아	보고타	양 호
17	탄자니아	시낭가	전동진
18	페루	리마	양용석

## 사회사목국

“거룩함에 있어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걷는 여행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하느님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함의 표징들 중의 하나로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교황님은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일,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는 일, 빵 몇 덩이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등 아주 사소한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신 제자들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당부하십니다. “사랑의 사소한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돌보고 개방적이며 복음화하는 분위기를 창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현존하시면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그 공동체를 성화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41항, 142항, 145항 참조)

## <경찰사목위원회>

### 1.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

불규칙하고 과도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교회 내 활동이나 교육적 혜택이 어려운 경찰서와 더불어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자들이 복음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목’을 힘써주십시오.

또한, 경찰교우연합회 활동을 통해 경찰기관 내 교우 활동이 열악한 교우회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신앙 공동체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전국의 많은 경찰교우들이 같은 직업군으로뿐 아니라, 같은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타 교구 경찰사목과 협력하며, 전국 경찰사목 사제모임과 전국 경찰교우 대상 심신 고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 2. 선교하는 공동체

유치장 안의 유치인들에 대해 현재 자신들의 상황을 헤아려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활동을 통해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잦은 출동과 철야, 시위 전방에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의무경찰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민들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의무경찰, 유치인들을 만나는 봉사자(선교사) 양성 및 선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큰 관심을 쏟아 주십시오.

## <노동사목위원회>

다양한 노동의 형태에 차별과 불평등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공공서비스 종사자(간병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들의 노고를 살피고 기본적인 예의와 이해, 배려와 소통을 통하여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이들의 노동은 개인적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역량에 기여합니다.

## <노인복지위원회>

1. 우리나라는 현재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주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독거어르신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의 기능도 약화되어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2. 2020년 본당 공동체의 해를 맞이하여, 이러한 독거어르신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그분들에게 더없는 위로와 삶의 희망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각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위원회 산하 노인종합복지관들과 데이케어센터, 그리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노인시설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지자체, 복지시설들이 함께 연대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선교와 사랑실천에 더욱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단중독사목위원회>

모든 중독자와 가족공동체가 하느님의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탈중독을 실천하고 유지함으로써 건강하게 회복하여 다른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본당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선포함으로써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로 거듭 쉼을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사목위원회>

질병의 고통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도 어둠과 슬픔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고통에 짓눌려 절망 속에 머물지 않고 고통의 어둠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원목자와 원목봉사자의 양성과 육성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질병을 다루는 의료담당자들이 지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소명의식을 갖고 복음의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와 영적인 돌봄을 더불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빈민사목위원회>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1요한 3,18)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본당의 소외된 이웃은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독거어르신,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가구,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삶이 평안하지 않은 이웃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십시오. 고충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살피주는 관심에서 삶의 자리에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관심과 행동이 그리스도 복음 정신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안에 갇혀있는 수용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2. 교정시설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제한된 시공간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열정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각 본당 공동체 안에서,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식구로 아파하는 신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홀로 마음 아파하면서 옥바라지 하시는 공동체원들, 또한 범죄로 피해를 받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위로해주시고,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4. 출소자를 색안경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5. 본당이 ‘선교하는 공동체’이 될 수 있도록, 교정 봉사자 및 후원자들을 격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5)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구의 모든 본당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고 나누며 전한다면 진정 선교의 공동체, 복음화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2020년 사목교서 중에서)

1. 본당 사목회에 사회사목분과가 구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므로,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임을 믿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돌보는 삶, 이웃과 나누는 삶,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증거하는 것도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본당 내 사회사목분과의 구성과 활성화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선교를 지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변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숙인, 노인 등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사랑을 전달해야 할지 막연하게 알 뿐 구체적인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본당의 사목회, 사회사목분과, 구역(반), 레지오 마리에 등 본당 교우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 ① 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영역의 이해, 방법과 실천에 대한 교육 및 나눔의 묵상회 피정 등에, 본당 교우들과 봉사자들이 참여하신다면 사랑실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② 본당 관할 지역의 지자체(시·구·동)와 더불어 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및 지역 내 사회복지회 소속 시설들과 연계하여, 본당 공동체가 폭넓은 사랑실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③ 본당의 상황에 맞게 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도움을 받아, 본당만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찾아가는 사목,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도움주기 등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1. 본당 공동체 내에 ‘우리농 생활공동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본당 사목회 사회사목분과 산하에 ‘우리농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일용할 양식을 중심으로 참된 나눔과 형제적 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우리농 생활공동체’는 생명의 먹거리의 나눔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평신도들의 생태 사도직 단체로서 신자들의 삶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드러내는 생명살림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교류활동과 계약생산, 계약소비로 이어지는 직거래 나눔활동은 도시와 농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생태 사도요 선교사인 ‘우리농 생활공동체’를 통해 선교사로 살아가는 생동감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본당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밥상’ 차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본당 공동체 내에는 다양한 밥상(주일학교 간식, 노인대학 식사, 주일 국수 나눔, 크고 작은 본당 행사 등)이 마련됩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수입농산물과 생명이 오염된 공장의 가공식품 대신,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을거리로 생명의 밥상을 마련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곧 생활실천운동이고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일입니다.”(故김수환 추기경, ‘우리농본부 창립 1주년 강론말씀’ 중에서) 교회 밥상의 변화는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널리 확산하는 길이고, 땅과 밥상,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밥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시작이고, 하느님 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이주사목위원회>

사목교서에서 교구장께서는 선교하는 본당 공동체가 되기 위해 특별히 이주민 등과 같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관심과 돌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민들과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셨

습니다. “비록 거기에서 당장 실질적인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알아 뵈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저는 노숙자, 중독자, 난민, 토착민, 점점 더 소외되고 버림받는 노인들과 그 밖의 많은 이를 생각합니다. 이민은 제게 특별한 과제를 줍니다. 탁월한 복음 선포자이시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특별히 가장 작은 이들과 동일시하십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받기 쉬운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10항, 209항 참조)

교황께서 이렇게 이주민과 난민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도 난민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당에서는 이들을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이해하고 공감해 주며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우리 신앙과 교회 활동의 힘의 원천인 미사에 편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환대하여 주시고, 이주민의 특성상 먼저 교회를 찾기 힘든 어려움을 배려하시어 구역, 반에서 먼저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교회의 작은 공간일지라도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중독연구재단(카프성모병원)>

알코올중독과 각종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영성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1.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모습은 본부의 설립 정신인 사랑과 나눔의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각 본당에서는 본당 교우들이 생명 나눔에 적극 동참해 성체성사의 은총을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특히 본부가 펼치고 있는 장기기증운동, 조혈모세포기증운동, 헌혈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전 세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돌보기 위해 5월과 9월 실시하는 헌미 헌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본당에서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캠페인, 자살예방교육과 자살유가족 프로그램에 교우들이 적극 동참해 우리 주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살유가족들과 자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웃들에게 하느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3.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명나눔교육, 지구시민교육, 나눔교육,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



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도 신자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목위원회>

1. 본당 공동체는 전 지구적이며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해 본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생태계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본당 사목협의회 안에 생태환경문제를 전담하는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이 분과를 중심으로 본당 안에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당 공동체가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매월 살피고 그 소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본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행사를 계획하고 마칠 때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률을 줄이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사목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 나갑니다.
3.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본당 건물에 설치하여,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호소에 응답합니다.
4. 본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간식을 줄 때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5.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하는 지역 자치단체 및 시민들과 연대합니다.
6.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수록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본당 공동체가 함께 자주 바칩니다. 특히,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기간(9월 1일부터 10월 4일)에 미사와 기도 행사를 마련합니다.
7. 본당 내에 생태 사도직 단체인 “하늘땅물벗” 설립을 장려하여, 신자들이 모여 생태계 문제 해결과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고, 공부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생명위원회

생명위원회에서는 2020년 우리 교구의 사목방침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에 따라 사목교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본당 생명분과’는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회칙 생명의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당 생명분과위원들은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봉사자’들입니다. 본당 내에서 이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생명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에서는 반드시 생명분과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당 생명분과의 생명수호활동은 제 분과 및 단체들과 「함께 하는 사목활동」입니다. 각 본당에서는 제 분과 및 단체들도 본당 생명분과와 함께 생명수호활동에 동참하도록 장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당 생명분과 활동계획’을 2020년 본당 사목방침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당 생명분과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실천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각 본당에서는 교구에서 시행하는 생명교육과 활동에 본당 신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내에서도 교우들을 위한 생명교육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행해주시기 바라며, 본당 신부님들께서는 여러 기회의 강론을 통해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교우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당 생명분과위원들을 위한 양성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내 생명교육 : 사순, 대림시기 특강, 견진성사 준비교육, 생명주일 강론, 생명특강(노인대학, 자모회 등)
- 본당 생명분과위원 교육 : 정기연수(연 2회 의무참석) 및 생명세미나 참석, 꿈꾸는 생명교실(회칙 「생명의 복음」-생명의 봉사자 양성교육)
-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교회 가르침 - 회칙 「인간생명」 강좌
- 사제, 수도자들을 위한 생명연수(사제중견사제연수, 사제일반교육연수)
- 신자들을 위한 「참 생명학교」 강좌
-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읽기 및 필사 운동

3. 본당 생명분과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봄으로서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사목활동」입니다. 따라서 각 본당에서는 생명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생명을 위한 기도봉헌 운동’을 각 가정과 본당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생명수호를 위한 미사와 전례 그리고 생명존중행사 등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 본당 생명미사 봉헌, 생명을 위한 밤 기도, 임신부 및 태아 축복미사, 난임부부를 위한 축복식

- 가정과 본당에서의 기도운동 : ‘생명을 잉태한 가정과 병자들을 위한 기도봉헌 운동’  
(과달루페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운동)
- 행사 : 생명대행진, 생명토크콘서트 참석
- 돌봄 :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혹은 매일 안부전화, 병자방문

4. 생명위원회에서는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인간생명」의 가르침에 따라 ‘자연주기법’을 핵심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행복한 가정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운동교육은 가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므로 가임기 교우 부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주기법을 기초로 한 성·생명·사랑교육인 ‘틴스타’ 프로그램에도 본당의 청소년·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각 본당에서는 교우들이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임종의 위험에 처해있거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교우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본당 가정간호와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임의 고통 속에 있는 부부들을 특별히 돌보아주시고 가톨릭적 난임 극복 프로그램인 ‘나프로 임신법’을 교우들과 난임 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낸 미혼부모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홍보위원회

1. 오늘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속도를 더해가는 디지털 세상에서 선교 사명을 완수하려면 교회 홍보 기구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복음 선포의 도구로 쓰이려면,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변화하여 홍보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홍보위원회는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서울주보 등 우리 교구의 홍보 기구들과 상호 협력 소통하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선교 홍보 콘텐츠 개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교와 홍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바티칸 뉴스([www.vaticannews.va/ko.html](http://www.vaticannews.va/ko.html))’ 한국 지부는 교황님의 기도와 강론, 바티칸을

비롯한 세계 교회 소식을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가르침을 자주 접하고 되새긴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고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회 미술은 다양한 예술 형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교 전례에 시대적, 지역적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그리스도교의 초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미술사를 쉽게 공부하고 우리 곁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성당의 미술품들을 알아보는 교육을 통해 신앙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톨릭미술해설사 양성을 통해 교회 미술품이 갖는 의미와 소중함을 알리고 교회미술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능동적으로 교회미술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갤러리 1898에서는 성미술의 발전을 위해 미술가들의 영성에 도움을 주어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발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 < 안 내 >

각 부서별 「사목목표 및 주요시책」과 「교육 및 연간계획」은 아래와 같이

서울대교구 홈페이지(<http://aos.catholic.or.kr/>) → ‘사목교서 및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ARCHDIOCESE OF SEOUL

교구소개 본당소개 부서소개 기관및단체 사목지침 교구지도

2019년 10월 11 금요일  
[[축] 연중 제27주간 금요일]

교구장 추기경님 홈페이지

**사목교서 및 지침**  
사목지침서

서울주보  
매주 주보보기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

교구소식 + 교구자료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Ar...  
13,834 개 좋아요



천주교서울대교구 ARCHDIOCESE OF SEOUL

교구소개 본당소개 부서소개 기관및단체 **사목지침** 교구지도

홈 > 서울대교구 > 사목지침

**사목지침**

교구전체

사무처 (+)

**사무처**

전산정보실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통합사목연구소

관리국

사목국 (+)

청소년국 (+)

홍보국 (+)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처**

번호	제 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4	2019 사목지침서 - 목표		사무처	2018-11-14
3	2018 사목지침서 - 목표		사무처	2017-11-28
2	2017 사목지침서 - 목표(수정)		사무처	2016-11-16
1	2016 사목지침서 - 목표		사목국행정실	2016-09-19

1

제목  검색하기